

# 도서 《김일성주석님과 재일동포》를 펼치며

우리 민족이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천만뜻밖에 서거하신 때로부터 어느덧 29년이 지난 세월이 흘렀다.

이 날은 우리 겨레가 얼마나 위대한분을 민족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왔던가를 심장으로 절감한 날이기도 하다.

하기에 아버지 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그려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이의 불멸의 영도업적과 환없이 은혜로운 사랑의 역사를 도서들에 담아 세상에 내놓았다.

그 수많은 도서들 가운데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에 즈음하여 발행한 도서 《김일성주석님과 재일동포》도 있다.

도서에는 재일동포들의 명명 개척에서 세계적인환을 가져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사상과 현명하고 세심한 영도, 은정넘치는 사랑과 보살핌심을 되새기며 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려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다함없는 충정의 마음이 깃들었다.

한때는 변칙적인 총련이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 조국을 대신하는 진정한 어머니품으로 되돌아갈 길을 이끌어 주시고 동포들의 생활을 친이비서시정정으로 보살펴주시는 수령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또 한때는 변칙적인 미국 땅에서 고생하는 총련동무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시며 온몸을 지새우시던 수령님의 숭고한 모습, 조국을 방문한 동포들을 만나신것이 재일 기쁘다시며 총련일군으로부터 상공인, 지식인, 문화체육인, 청소년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남녀로소모두를 다 만나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기념사진도 함께 찍어 주시던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어려오는것만 같다.

도서에는 《역사의 날-1952년 12월 2일》에는 이런 잊지 못할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삼천리강도가 가릴적절한 전쟁의 불길속에 불분립치던 그때 애국적인 재일조선인활동가들이 파견한 연락원을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재일조선인운동을 두고 그처럼 마음쓰시며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사람은 남의 나라에서 살아도 우선 자기 조국, 자기 민족을 위하여 살며 일해야 한다는 주체의 진리를 밝혀 주신 이날이 있어 사대와 민족허무주의의 진창에 깊숙이 빠졌던 재일조선인운동은 자기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고 비로소 올바른 발전의 길에 들어설수 있게 되었다.

하기에 주제44(1955)년 5월 25일 주체의 산아,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가 자기 탄생의 은 세상에 선포하던 력사의 그날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자기들에게 항상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돌려주시며 행복과 번영의 길로 영도하여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충심으로부러의 감사와 최대의 영예를 드리는 편지를 대회의 이름으로 삼가 올리였었다.

세계해외교포운동의 선구자, 공화국의 자랑으로 온 세상이 부러워 경탄해마지 않는 총련이 그토록 위력한 것은 무엇보다도 인제인이 어느나라 대통령이 수령님을 만나보은 기회에 조선에서는 해외교포를 조직을 못그들을 든든히 묶어세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는가와 말씀올린적이 있었다고 한다.

도서에는 그대를 회상하시며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사가 수록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해외에서 사는 교포들을 묶어세우려던 조직을 무어야 하고 또 조직을 뭏치면 핵심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북측에 비유해서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북측에는 가운데에 핵과 같은 씨가 있고 그 주위에 굳은 껍질이 있으며 껍질은 해외에 사는 자기 교포들을 묶어세우려던 우선 핵심이 있어야 하고 핵심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묶어세워야 한다. 무화과와 같이 불려불려한 조직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랜 세월 심혈을 기울여 키워오신 재일조선인운동의 든든한 핵심력량과 어머니조국에 대한 많은 교육원리와 장학금 불라는 총정의 마음을 안고 그 주위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동포들은 총련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었음을 도서 《북측이야기》는 말해주고 있다.

도서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조국을 알고 혁명을 하자면 배두산에 가야야 한다 하고 하시며 조국을 방문한 재일조선인총련합회 성원들에게 백두산답사길을 열어 주신 가슴뜨거운 이야기이고 주제79(1990)년 4월 총련일군들을 만나주신 자리에서 지난해 조국이 없었던것에 대한 민족적분노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오던 재일동포들이 공화국인기에 그나마 민족적분노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몇몇하게 살고 있다고, 무엇보다도 귀중한것이 조국이라고 하시며 열렬한 조국애를 심어주신 이야기이다.

어찌 그뿐인가. 조국을 방문한 총련일군들

과 재일동포들에게 금강산에 갔든 전설도 이야기해주시고 음식은 조선음식이 제일이라고 하시며 동포상공인들의 가슴마다에 민족의 넋과 향취를 부어주신 뜻깊은 이야기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족교육의 대화원을 마련해주시고 뜨거운 사랑과 은정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주신 이야기들도 감동없이 읽을수 없는 대목이다.

공화국이 전후 제타미를 해치고 창조와 건설을 하면서 한층의 자급을 보자라는 안된다고, 그것은 민족을 도로 찾고 민족을 지켜나가는 중요한 민족적교육사업이라고 하시며 재일동포자녀들에게 많은 교육원리와 장학금을 보내주시고 이 사업을 항구적인 국가사업으로 틀어쥐고나가도록 해주신 위대한 수령님.

수령님의 하늘같은 은덕에 의해 허물어져가는 교실 아닌 교실 《교실》에서 백묵과 종이 마저 부족하여 배움의 꿈을 포기했던 동포학생들이 기쁨과 희망속에 배움의 창가에 들어섰고 총련의 자랑 조선

대학교의 이역의 하늘아래 세계유일의 해외교포대학이, 총련민족간부양성의 원장으로 거연히 솟아 빛나게 되었다.

도서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화국정부는 재일동포들이 조국에 돌아와 새 생활을 할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보장하여줄것이라고, 우리는 이것을 자기의 민족적부담으로 생각하고 하시며 귀국의 배움을 열어주시고 재일동포들을 태워올 때는 조국의 한 부분을 이라고 하시며 《만경봉》호의 설계로부터 의장품, 식대에 오르는 로리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신 이야기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만나주시고 아껴주시며 내세워주시는 이야기들은 또 얼마나 만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적셔주는 것인가.

위대한 수령님의 하늘같은 사랑이 있어 오래동안 병고를 시달리던 총련일군이 대지를 활보하게 되고 조국건설에 특색있게 공헌한 총련조직원과 단체, 사업체, 개별동포들이 각종 국가훈장과 명예칭호들을 수여받고 누구나 쉽게 오를수 없는 영성의 언덕에서 오늘도 조국과 인민

이 기억하는 창립 애국자의 삶을 누리고 있다.

총련이 그처럼 엄격한 환경속에서도 변함없이 주체의 길, 애국애족의 길을 뜻깊이 이어올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을 모시였기때문에 감동깊은 력사의 화폭들과 더불어 소중히 새겨주는 도서 《김일성주석님과 재일동포》!

식민지노예로 일본땅에 끌려가 인간이하의 학대와 멸시, 굶주림에 시달리던 재일동포들에게 민족해방의 기쁨과 자주독립국가의 해외공민 된 존엄과 영예를 안겨주시고 애국애족의 참다운 동포 조직인 총련을 무어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로 높이 내세워주신 아버지수령님의 한생의 로고와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며 재일동포들과 공화국인민들은 굳게 확신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이시며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영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오늘을 물론이고 앞날도 언제나 밝고 창창하라는 것을.

김 명 국

주제39(1950)년 8월초 전선사령부가 자리잡고있는 수안보를 찾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조선 인민군 전선사령부 일군 및 전선연합부대 지휘관, 문화일군회의를 소집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안보에서 전선용사들을 만나니 대단히 기쁘다고, 전선사령부를 전선사령부에 있는 수안보로 옮긴것은 잘한 일이라고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전선연합부대들의 금후 군사행동방향에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연설에서 먼저 인민군부대들이 공화국에 대한 적의 침공을 좌절시키고 반공적으로 넘어간지 1개월이 경과하였다고 하시면서 이 기간에 영웅한 인민군장병들은 련속적인 타격으로 적을 소탕하고 남조선의 넓은 지역을 해방하였다고 언급하시며 인민군전투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해주시었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난 전쟁과정에서 나타난 결함과 그 표현, 원인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그리면서 여러가지 결함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일부 군사지휘관들이 현대전의 요구와 산악이 많은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군사규정과 전투경험을 기계적으로 군사행동에 적용한데 있다고 교시하시었다.

사태와 교조가 있는 곳에서는 창조가 절실히 필요하며 꼭질에 따라 되며 누가 누구를 하는 차별한 전쟁터에서는 값비싼 피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법이다.

하지만 당시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들은 조선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전법대로 싸울 대신 다른 나라의 전술규범과 전쟁경험에 매달리면서 적들을 하여 금력함을 재검열하여 인민군대의 진격에 저항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 주었다.

최고사령부의 전략적의도를 받들지 못하는 이와 같은 결함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미제대병력을 증강하고있는 조건에서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수 있었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포연이 자욱한 수안보까지 나오시어 항일혁명전쟁의 전 기간 심장속에 간직하고 구려했으셨으며 해방된 조국땅우에 인민의 새 나라를 세우시면서 더욱 굳건히 자국의 길만이 승리의 길이고 사대는 망국의 길이라는 철리를 다시 금 천명하시었다.

본사기자 림 광 훈

## 주체적인 전법으로 싸우야 한다

## 자주의 철리, 민족의 넋을 새겨주어야

### ◎ 세계가 공인한 불세출의 위인 ◎

력사의 품과속에서도 시대의 조종간을 틀어쥐고 인류사주위업을 승리에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께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은 이전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 연방공화국 대통령 지프의 가슴속에서도 글없이 물결쳤다.

주제64(1975)년 6월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지프대통령과 회담을 하실 때 있었던 일이다.

회담에서 아버지수령님께서 조선로동당과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 자동맹사이에 의견상이 없고 단결할수 있는 튼튼한 기초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당이 다 자주성의 원칙을 견지하고있는것이라고 하시었다.

지프대통령은 몹시 감동된 기색으로 존경하는 김일성주석의 말씀을 참으로 옳은 말씀이라고, 주석주치의 말씀을 통하여 자주성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견지하는데서 나타나게 된다는 진리를 더욱 깊이 깨달게 되었으며 공산주의자들은 오직 자기 나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할 때에만 승리할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할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시었다.

지프대통령은 위대한 수령님과 여러 차례 상봉하면서 그이의 천출위상에 매혹되고 그이의 남다른

친화력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더우기 제기되는 문제마다 깊은 뜻과 심오한 내용을 담아 말씀하시는 수령님의 뛰어난 웅변술과 해박한 지식에서 그이의 비범한 예지와 정치철학성을 느꼈으며 드거우면서도 섬세하고 대범한 성품에서 고결한 도덕리와 사심없는 우정을 느끼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천금같은 교견을 받아안으며 그는 수령님을 자기보다 리상으로 그려보던 가장 대박하고 정치철학이 특출하며 자존심이 높고 리치에 밝은 위인으로, 세계혁명과 빨리빨리 당담운동의 위대한 령도자, 회세의 정치대가로 높이 칭송하면서 《나는 수많은 나라 국가수반들을 만나 보았는데 만나 뵈자마자 이처럼 빨리 의사가 통하고 친근해진분은 오직 김일성주석님뿐이었습니다.》고 자기 매혹된 심정을 그대로 털어놓았다.

하기에 웅간해서 다른 나라에 대한 방문을 잘하지 않는데 지프대통령은 주제66(1977)년 8월 85살의 고령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멀리 떨어져진 조선을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탁월한 령도자로 높이 칭송하였었다.

리 일 현

1956년 3월 《청년문학》 창간호에 실린 단편소설 《두번째 대답》은 소설창작의 첫 발자국을 내디딘 석윤기선생의 개성적인 얼굴을 단번에 뚜렷이 드러내며 새 문단의 이목을 집중시켰었다.

단편소설 《두번째 대답》을 쓴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구제없이 알고싶어하였다.

그가 남조선에서 의용군으로 입대하여 전승의 날까지 용감하게 싸운 20대청년으로서 병원침상에 누워있는 전상자라는것이 알려지자 그의 소설이 일찍이 과문은 몇배로 더 커졌다.

석윤기선생은 전쟁 3년 전 기간 자동차를 운전한 수승전투원이었다. 전쟁의 불바다속을 헤쳐며 말려진 수승전투원 무를 어김없이 수행함으로써 《용감한 수승전투》, 《영웅적전투》로 전선신문에까지 소개된 위훈자였다. 그런데 전승의 소식을 듣고 전우들과 함께 단식을 행하던 그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일어설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다. 의식을 잃은 석윤기선생을 진찰하던 야전군의 소 군의들은 그만 아연실색하여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이미 오래전에 갈비뼈가 온통 으스러졌던데도 석대는 아

무리한 상태였다. 그리고 강한 외부전격을 받은것으로 보아지는 척추는 당장 동강날듯한 위험정도에 있었다.

군의들은 사나이의 강인한 정신에 감동되어 눈물을 머금고 그를 지체없이 후방 길이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그의 병원생활이 3년이나 흘러 1956년에 이르렀다.

어느날 석윤기선생은 당시 이 병원 원장사역을 하던 항일혁명투사 림훈수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심장에 강한 충격을 받았다.

주제40(1951)년 6월말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안으신 그 바쁜신 환경속에서도 문학예술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시기 위해 작가, 예술인들을 만나주시었다는 것이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작가, 예술인들에게 작품에서 우리 인민의 숭고한 애국심을 잘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애국심은 그 어떠한 추상적인 개념인것이 아니라 자기 조국의 강도와 력사와 문화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며 그것은 또한 자기 교양과

항사들에게 대한 애국심, 자기의 부모친척에 대한 애정에서도 표현되는것이라고 교시하시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석윤기선생은 위대한 수령님께 대한 열화같은 흠모심이 가슴에 차넘치었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수 있었던 기본요인이 무엇이었는가를 순간에 깨닫게 되었다.

그는 쓰고싶었다. 우리의 애국심과 그 무진장한 위력에 대하여 쓰지 않고는 견딜수가 없었다. 병상을 빠져 일어나 창작에 달라붙었다. 선생은 창작을 곧 조국을 위하여 병사가 벌리는 전투로 간주하였다. 이렇게 하여 전진기 단편소설 《두번째 대답》이다.

이 소설은 발표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었다. 그것은 이 작품이 전쟁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무기냐? 사람이냐?》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생동한 형상으로 연어내었기때문이다.

군복업은 처녀의 용감한 모습과 백철불굴의 무장정

신일에 무를 꿰는 포로가 하는 두번째 대답은 곧 영웅적인 조선인민앞에 참패를 당한 미국이 찾아야 할 교훈적인 대답이었다.

후날 단편소설 《두번째 대답》을 읽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이 작품은 하나로 단합된 전쟁의 생활을 취급하면서 불과 몇 시간동안에 두명의 등장인물들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대한 힘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철학적이기 있게 밝혔다고 하시면서 현대전쟁의 운명은 무기나 기술에 의해서가 아니라 군대와 인민의 전투도덕적 품성, 수령의 사상에 의하여 한자로 단합된 국민의 정치사상적단결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작가 석윤기는 단편소설 《두번째 대답》을 내놓은데 뒤이어 중편소설 《전사들》을 대할 때부터 신작의 창작에 비친 명석한 철학적전해와 독특한 창작기교를 범상치 않게 여겨보시였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번에도 중편소설 《전사들》을 깊은 관심속에 보아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제51(1962)년 9월 어느날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앞에서 장시간에 걸쳐 중편소설 《전사들》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는 중요한 담화를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러한 관심속에서 석윤기는 보다 더 광활한 소설의 대지로 활보해갔다.

석윤기선생은 1961년부터 그리도 열망하던 현역소설가가 되었다.

전쟁물주체의 새로운 소설을 내놓겠다는 결심을 가

지고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던 선생은 장편소설 《시대의 탄생》을 구상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껏 말씀을 일으키던 척추결핵이 갑자기 악화되었다.

작가는 생명을 잃을뻔하는 무거운 숙명을 동반하는 대수술을 선택해야 하였다.

그러나 석윤기선생은 이런 형편에 직면해서도 창작의 붓을 절대로 놓지 않았다. 말 그대로 초인간적인 의지와 열정을 기울인 창작과정이었다.

장편소설 《시대의 탄생》 1부를 내놓은 다음 2부의 초고를 다 쓰고 추고하는 과정에 석윤기선생은 자기 지극 무엇인가 분명히 놓치고 있다는것, 놓쳤다가도 모르고 작품을 창작하고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 골몰하게 되었다. 민족의 위대한 력사, 민족의 존엄과 긍지, 민족의 창창한 레일을 형성함에 있어서 근본을 놓치고있는것같은 허전함을 그를 괴롭히곤 하였다. 몇달을 두고 그 대답을 찾아 모대했지만 생각만 더 깊어지고 수없이 가지를 뺀 상념속에서 헤어날수가 없었다.

그의 이러한 모대기는 탁월한 스승의 가르치심을 받고서야 풀릴수 있었다.

본사기자

### 민족의 단합과 변명을 위한 길에서

## 진리의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2)

에 별다른 상태였다. 그리고 강한 외부전격을 받은것으로 보아지는 척추는 당장 동강날듯한 위험정도에 있었다.

군의들은 사나이의 강인한 정신에 감동되어 눈물을 머금고 그를 지체없이 후방 길이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그의 병원생활이 3년이나 흘러 1956년에 이르렀다.

어느날 석윤기선생은 당시 이 병원 원장사역을 하던 항일혁명투사 림훈수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심장에 강한 충격을 받았다.

주제40(1951)년 6월말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안으신 그 바쁜신 환경속에서도 문학예술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시기 위해 작가, 예술인들을 만나주시었다는 것이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작가, 예술인들에게 작품에서 우리 인민의 숭고한 애국심을 잘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애국심은 그 어떠한 추상적인 개념인것이 아니라 자기 조국의 강도와 력사와 문화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며 그것은 또한 자기 교양과

항사들에게 대한 애국심, 자기의 부모친척에 대한 애정에서도 표현되는것이라고 교시하시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석윤기선생은 위대한 수령님께 대한 열화같은 흠모심이 가슴에 차넘치었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수 있었던 기본요인이 무엇이었는가를 순간에 깨닫게 되었다.

그는 쓰고싶었다. 우리의 애국심과 그 무진장한 위력에 대하여 쓰지 않고는 견딜수가 없었다. 병상을 빠져 일어나 창작에 달라붙었다. 선생은 창작을 곧 조국을 위하여 병사가 벌리는 전투로 간주하였다. 이렇게 하여 전진기 단편소설 《두번째 대답》이다.

이 소설은 발표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었다. 그것은 이 작품이 전쟁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무기냐? 사람이냐?》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생동한 형상으로 연어내었기때문이다.

군복업은 처녀의 용감한 모습과 백철불굴의 무장정

신일에 무를 꿰는 포로가 하는 두번째 대답은 곧 영웅적인 조선인민앞에 참패를 당한 미국이 찾아야 할 교훈적인 대답이었다.

후날 단편소설 《두번째 대답》을 읽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이 작품은 하나로 단합된 전쟁의 생활을 취급하면서 불과 몇 시간동안에 두명의 등장인물들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대한 힘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철학적이기 있게 밝혔다고 하시면서 현대전쟁의 운명은 무기나 기술에 의해서가 아니라 군대와 인민의 전투도덕적 품성, 수령의 사상에 의하여 한자로 단합된 국민의 정치사상적단결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작가 석윤기는 단편소설 《두번째 대답》을 내놓은데 뒤이어 중편소설 《전사들》을 대할 때부터 신작의 창작에 비친 명석한 철학적전해와 독특한 창작기교를 범상치 않게 여겨보시였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번에도 중편소설 《전사들》을 깊은 관심속에 보아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제51(1962)년 9월 어느날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앞에서 장시간에 걸쳐 중편소설 《전사들》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는 중요한 담화를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러한 관심속에서 석윤기는 보다 더 광활한 소설의 대지로 활보해갔다.

석윤기선생은 1961년부터 그리도 열망하던 현역소설가가 되었다.

전쟁물주체의 새로운 소설을 내놓겠다는 결심을 가

지고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던 선생은 장편소설 《시대의 탄생》을 구상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껏 말씀을 일으키던 척추결핵이 갑자기 악화되었다.

작가는 생명을 잃을뻔하는 무거운 숙명을 동반하는 대수술을 선택해야 하였다.

그러나 석윤기선생은 이런 형편에 직면해서도 창작의 붓을 절대로 놓지 않았다. 말 그대로 초인간적인 의지와 열정을 기울인 창작과정이었다.

장편소설 《시대의 탄생》 1부를 내놓은 다음 2부의 초고를 다 쓰고 추고하는 과정에 석윤기선생은 자기 지극 무엇인가 분명히 놓치고 있다는것, 놓쳤다가도 모르고 작품을 창작하고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 골몰하게 되었다. 민족의 위대한 력사, 민족의 존엄과 긍지, 민족의 창창한 레일을 형성함에 있어서 근본을 놓치고있는것같은 허전함을 그를 괴롭히곤 하였다. 몇달을 두고 그 대답을 찾아 모대했지만 생각만 더 깊어지고 수없이 가지를 뺀 상념속에서 헤어날수가 없었다.

그의 이러한 모대기는 탁월한 스승의 가르치심을 받고서야 풀릴수 있었다.

본사기자

##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철폐를 요구하여

생들에 대한 고등학교무상화제도의 즉시 적용, 조선유치반에 대한 유보무상화제도의 적용, 조선학교와 학부모들에 대한 지방자치제도보조금 지급 장려, 조선학교의 력사에 대한 존중과 민족교육의 보장 등을 촉구하였다.

이어 여러 어머니대표들이 발언하였다.

녀성동맹 가나가와현본부 백주비부위원장 《일본 각지 어머니들은 민족교육을 지켜낼 줄은 결의를 다짐하면서 이 요청서를 채택하였다. 앞으로 조선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자기 민족에 대

하여 당당히 말할수 있는 사회를 꾸릴것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다른 대표들도 《아이들이 조선학교에 다녔으나 한번도 보조금을 받아본적이 없다.》, 《일본정부가 각종 교육제에서 조선학교를 배제하고 민족차별정책을 실시하고있으나 우리 학생들은 씩씩하게 자라나고 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번 아이들의 모습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차별철폐를 위한 행동에 나설것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또한 일본정부가 조선학교를 무상화

제에서 배제하고도 조선학교를 차별하는것은 다는 억면서 《차별하는것은 늘 차별을 가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조선학교와 외국학교에 대하여 알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송해속 재일본조선인연맹회 부장은 유보무상화의 대상으로 조선유치반이 의도적으로 배제된데 대하여 비난하면서 《아이들의 배움 권리는 인권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 대한 차별공조를 조

성을 방문하였을 때 일본에서 조선학교학생들을 차별하는가에 대하여 거듭 질문을 받았다.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